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리가면: 무서운 아이』

청소년 독서 지도안 (9차시)



만든 이: 장충고등학교 사서 교사 권희린

『유리가면: 무서운 아이』 청소년 독서 지도안은 생각정원 출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3347932>)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마음이 힘들 때, 나를 보호해줄 유리가면이 있을까?”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자기만의 유리가면을 찾아가는 10대들을 위한
다정하고도 반가운 응원

서울의 생각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15살의 유경은 글쓰기와 독서를 촌스럽게 생각하는 새 친구, 유미와 나리 틈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한다. 언젠가부터 유경은 유미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상의 전부가 되고, 자신감을 잃고 전전긍긍한다. 마음이 힘들 때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유경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유미와 등교하는 대신 혼자 일찍 학교에 와서 좋아하는 글을 쓴다.

이 과정에서 유경은 글쓰기라는 독특한 취미를 인정해주는 소중한 친구 채준을 만난다. 전교 1등에 등교까지 1등인 채준에게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이른 아침의 빈 교실에서 미우치 스즈에의 만화 『유리가면』을 읽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몰래 즐기기 위해 일찍 등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둘은 빠르게 친해진다. 채준은 유경에게 만화 『유리가면』을 소개하고, 이 둘은 함께 만화를 읽으며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간다. 또한 유경은 『유리가면』의 마야가 연기를 할 때 가장 기뻐던 것처럼, 자신도 글을 쓸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채준을 좋아하던 유미는 유경이 자신 몰래 채준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유경을 왕따시킨다. 자신을 왕따시키는 유미로 인해 유경은 예기치 못했던 곤경에 처한다.

이 책은 왕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친구들의 삶을 겹눈질하는데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중심에 무엇을 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우정은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읽기 전 소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
읽기 중 활동	2차시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3차시	공감하고 질문하기
	4차시	읽기 맥락으로 예측하며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5차시	발제문 만들기
읽은 후 활동과 발표	6차시	소설 속의 내용을 통해 가로세로 퍼즐 풀기
	7차시	카드뉴스 제작하기
	8차시	소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연계 독서	9차시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함께 읽고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1차시

책을 읽기 전 소설의 주제(왕따, 친구 관계, 사이버폭력 등)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기사를 함께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1. 유튜브 영상 <학교폭력: 여자 아이들 왕따>를 시청하고, 하단의 기사를 함께 읽은 후 다음 활동을 해보자.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59-Zs9-7-k>

네이버 뉴스: <https://kormedi.com/1339312>

청소년 우울증 유발 요인... “비만보다 왕따”

청소년기 우울증 증상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흔하다. 하지만 비만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10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성별 불문, 비만보다 왕따가 정신건강에 훨씬 더 위험한 요소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스웨덴 옅살라대 연구팀이 6년 동안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에서 관찰한 결과로 최근 『공공보건』 저널에 게재됐다. 옅살라대 신경과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소피아 칸더스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체질량지수(BMI)와 우울증 증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왕따와 비만이 미치는 영향에 남녀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조사했다.

이 연구를 위해 스웨덴 베스만랜드 카운티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이 키와 몸무게, 우울증 증상에 대한 질문에 세 차례(2012년, 2015년, 2018년)에 걸쳐 답변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첫 번째 설문 당시 14.4세, 마지막에는 19.9세였다. BMI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은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의 세 그룹으로 나뉘었고, 우울증도 증상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몸무게와 상관없이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말하는 10대 소녀들이 소년에 비해 더 많았다. 2012년 10대 소녀 17%, 10대 소년 6%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까지 이러한 증상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소녀 32%, 소년 13%로 늘어났다. 2018년의 해당 수치는 각각 34%와 19%로 증가했다.

연구에 의하면 BMI가 높아지는 것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소년들 사이에서 관찰된 패턴은 매우 달랐다. 남녀를 각기 분석한 결과 2012년 비만인 남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2015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정상 체중의 남학생보다 5배나 더 높았다. 소녀들에게는 그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연구팀은 무엇이 이 같은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에는 괴롭힘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했는지, 놀림을 당했는지, 따돌림을 당했는지, 사이버왕따를 당했는지 등에 대해 답했다.

분석 결과, 왕따에 노출되는 것은 우울증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은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과체중 소년들에게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BMI와 왕따가 함께 작용해 훗날 우울증 증상을 촉발할 때 이는 10대 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칸더스는 “이번 연구의 중요한 교훈은 왕따가 시간이 흐른 뒤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왕따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코메디닷컴』 2021년 5월 10일자

- 1) 영상과 기사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예시: 학교폭력,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아보자.

- 2) 같은 내용의 포스트잇끼리 분류하여 모으고,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의식 1가지를 골라 그 문제의 원인과 실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문제의식	
문제의 원인	
경험 유무, 현 실태 (교실, 또래 관계)	
문제해결 방법	

2차시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1.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뇌 구조를 그려보고 인물의 특징, 성격, 가치관 등을 정리해보자.

주인공	뇌 구조	뇌 구조 키워드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유추해보기
유경		
유미		

2. 책 속에 나오는 대사이다.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해보자.

등장인물	대사	페이지
()	“그거 알아? 지민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더라. 전에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계속 책 읽는 거 있지? 그런 촌스러운 애가 대체 어떻게 학급 임원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게다가 개 빌라 살잖아, 그것도 월세.”	66쪽
()	“유미가 너 좀 마음에 들어 한다고 이 기회를 틈타 날 밀어내려나 본데, 웃기지 마. 나랑 유미는 1학년 때 내내 베프였어. 난 다시 유미 베프가 될거야. 우리 크루에서 밀려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 삼김야!”	49쪽
()	나를 되찾기. 더는 유미의 눈치를 보지 말 것.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	80쪽
()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찝찝해. 유미랑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꼭 남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하게 되고, 또 늘 내가 돈을 내고.”	209쪽
()	“그래, 그 여왕벌을 말하는 거야. 유미는 바로 그 여왕이 되고 싶은 거 같아. 모두를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하는 여왕 말이야. 나 1학년 때부터 나리, 유미랑 친구였어.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나리랑 친구였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유미가 친한 척을 해왔어. 나야 뭐, 오는 사람 안 잡고 가는 사람 안 잡는 타입이니까 받아줬어. 유미가 워낙 예쁘잖아. 그런 애가 먼저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	210쪽
()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일을 당했더라고. 다들 자신이 잘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더라.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 라고, 어느 순간에도 따돌림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하더라. 그러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된 거야. 유미는 원래 그런 애라는 사실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자 괜찮아졌어.”	225쪽
()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거야. 넌 마야니까.”	248쪽

* 유미, 나리, 유경, 정원, 지민, 희선, 채준

3차시

공감하고 질문하기

1.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그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문장을 필사하고 행동에 공감하는 부분 혹은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페이지	필사한 문장	공감한 부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감하지 않는 부분 (<input type="checkbox"/>)
예시 79쪽	<p>유경은 다시 노트를 폈다. 친구의 입장에서 써 온 일을 떠올리며 글을 적었다. 그러자 친구가 얼마나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지 깨달았다. 유경은 미안해졌다. 다음 날, 바로 친구를 찾아 자신이 적은 글을 보여주며 사과했다. 둘은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과거를 떠올리자 유경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p> <p>‘상황을 타인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p>	<p>“엄마는 아빠랑 이혼했어?”라는 말을 듣고 목 소리를 높이며 따지는 엄마를 보며 유경은 엄마의 말에 꼬퍽이며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삐걱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거리를 두거나 옳은 말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롯이 나의 잘못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이 왜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해 용기를 내어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인 것 같다. 유경이도 이런 결심을 통해 유미와의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유미에게 끌려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기고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다.</p>

페이지	필사한 문장	공감한 부분 (<input type="checkbox"/>) 공감하지 않는 부분 (<input type="checkbox"/>)

페이지	필사한 문장	공감한 부분 () 공감하지 않는 부분 ()

2. 소설을 읽고 다음의 예시와 같은 질문들을 만들고 스스로 답해본 후 친구들과 그 의견을 나눠보자.

나의 질문	질문에 대한 답	친구들의 의견
<p>예시</p> <p>유미는 처음으로 유경이를 만났을 때, 부모님의 직업, 주택 소유와 대출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다. 유경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새아버지가 있다고 말하자 유미는 인상을 찌푸린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모두 박사학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한다. 유미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지금 나에게도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있나?</p>		
<p>예시</p> <p>내가 이 책의 저자라고 생각해보자. 이 책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으로 하고 싶은가?</p>		

나의 질문	질문에 대한 답	친구들의 의견

4차시

읽기 맥락으로 예측하며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1. 제목과 카피, 표지 그림을 살펴보고,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질문	읽고 난 후 답해보기
이 책의 제목인 '유리가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p>예시</p> <p>가면은 얼굴을 감추거나 꾸미기 위해 나무나 종이를 이용해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을 말한다.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이나 그런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보았다. 첫 번째는 유미의 유리가면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친구들 사이를 조종하며 이간질하는 유미의 태도가 속과 겉이 다른 가면과 닮았다. 두 번째는 유경이를 위한 유리가면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경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존재가 유리가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p>

질문	읽고 난 후 답해보기
<p style="text-align: center;">카피</p> <p style="text-align: center;">“마음이 힘들 때, 나를 보호해줄 유리가면이 있을까?”</p> <p>이 소설의 결말을 통해 이 카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또한 나에게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리가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표지</p> <p>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표지 그림을 통해 소설의 줄거리와 결론을 정리해보자.</p>	

5차시

발제문 만들기

좋은 발제문이란?

- 서로가 가진 지식과 의견을 꺼내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
-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할 수 있는 주제
- 책의 주요 쟁점과 맞닿아 있는 주제
-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발제문 만들기 팁!

- 4차시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숨겨놓은 발제거리를 활용한다.
- 찬반, 동의/비동의 질문을 활용하면 쉽다.
- 최근 사회 이슈와 연관 지으면 토론이 활발해진다.
- 문학과 비문학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발제에 흐름을 만들어본다.

예시)

☆ **문학** : 소감 → 소설의 주제와 관련 사회 이슈 →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 '나'에 대입
(『데미안』 :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 **비문학** : 주변의 구체적 사례 →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 미래에 대한 예측
(『선량한 차별주의자』 : 106쪽 '불굴의 의지로 온갖 관문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과,
'훨씬 적은 노력으로 쉽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는가?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가?)

1.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리가면』으로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발제문을 만들어보자.

6차시

소설 속의 내용을 통해 가로세로 퍼즐 풀기

1. 『유리가면』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아래의 박스에서 그 단어들을 찾아 색칠해보자.

교	거	소	설	보	라	장	미	코	추
가	스	라	이	팅	툰	질	스	계	이
웹	툰	작	가	길	거	리	캐	스	팅
스	노	벨	라	이	트	벨	카	질	하
종	락	락	카	리	머	라	관	간	라
관	질	카	타	르	시	스	후	이	타
리	낮	설	계	하	기	소	떡	볶	이
설	삼	김	이	이	설	소	적	전	자
빌	거	이	양	면	카	락	벨	레	라
계	감	설	고	약	유	리	가	면	초

문제

① 자기의 생애나 생활 체험을 소재로 하여 쓴 소설을 말한다.

② 이 소설의 제목은 미우치 스즈에의 만화 『OOOO』에서 따왔다.

③ 유경이 아빠의 직업은?

④ 사이좋은 두 명 혹은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유미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해서 친구들은 유미의 특기이자 취미라고 말한다.)

⑤ 소설에서 유경이의 별명은?

문제

- ⑥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
- ⑦ 반에서 가장 잘 생기고 공부도 일등인 채준은 어느 날 유경의 소설을 보고 000을(를) 찾는다며 결석을 한다.
-
- ⑧ 친숙하거나 인습화된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낮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방식은? (20쪽 참조)
-
- ⑨ 채준과 유경이 친해지면서 늘 먹던 음식은?
-
- ⑩ 채준이 유경이에게 글을 쓰는 이유를 물었을 때 유경이의 대답은? 00000을(를) 느끼려고
-
- ⑪ 유미와 나리, 지민 셋이 친했을 때 유미는 지민이에게 나리가 빌라에 사는 것을 보고 00라고 부른다. (210쪽 참조)
-
- ⑫ 유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0000을 잡아 뜯는다.
-
- ⑬ 유미는 엄마를 즐라 아이돌 학원에 견학을 간 후 000 000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
- ⑭ 유경 아빠의 여자친구인 영희는 과거에 0000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며 신인을 발굴하고 있었다.
-

자전적소설

유리가면

웹툰작가

이간질

삼김

가스라이팅

고양이

낮설게하기

떡볶이

카타르시스

빌거

머리카락

길거리캐스팅

보라장미

7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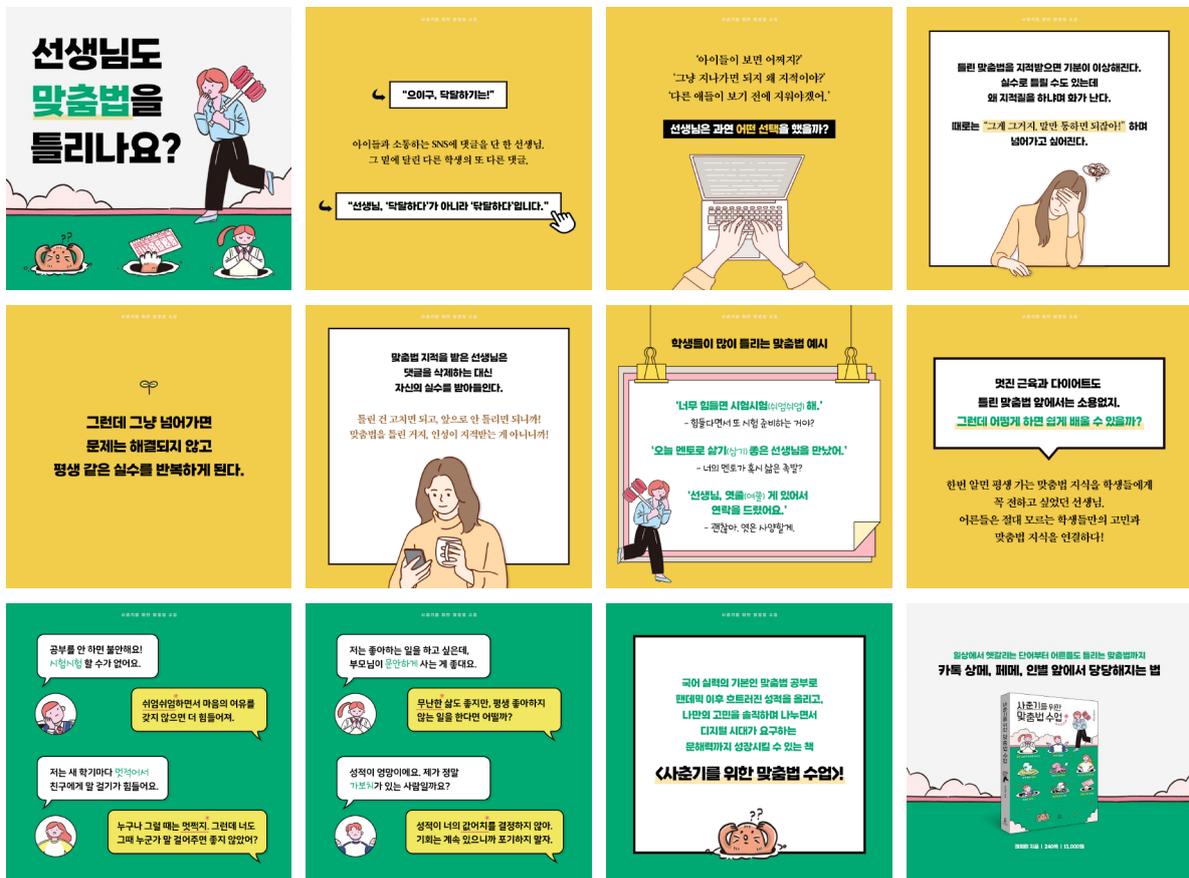
카드뉴스 제작하기

1. 지금까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발표해보자.

카드뉴스(Card News)란?

주요 이슈나 뉴스를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뉴스 포맷이다. 일반적인 뉴스 기사와는 달리, 짧은 글이 있는 여러 컷의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이미지마다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순차적으로 넘겨볼 수 있어 모바일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일반 뉴스 기사보다 가독성 및 전파력이 높고 확산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카드뉴스 제작 예시 · 권희린 『사춘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 카드뉴스 제작 팁!

<p>카드뉴스 만들기 순서</p>	<p>① 주제 선정하기 (사회적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 왕따, 악플, 사이버폭력, 익명성 등).</p> <p>② 카드뉴스 아이디어 구상하기(전하고 싶은 메시지 포함).</p> <p>③ 기획 의도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카드뉴스 제작하기(필사한 문장 활용).</p>
<p>유의사항</p>	<p>①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제작한다(긴 텍스트는 지양한다).</p> <p>② 정보, 감동, 재미를 담아야 한다.</p> <p>③ 폰트는 3가지 이내로 한다.</p> <p>④ 무료 이미지 사이트(미리캔버스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10장 이내로 만든다.</p>

• 카드뉴스 제작 계획서

<p>모듬명</p>	
<p>모듬 구성원</p>	
<p>카드뉴스 제목</p>	
<p>주제</p>	
<p>기획 의도</p>	
<p>주요 내용 (전체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한다.)</p>	

카드뉴스 순서		내용	매체 활용 (사진, 그림 등)
1			
2			
3			
4			
5			
6			
7			
8			
9			
10			

8차시

소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1. 유튜브 영상인 KBS의 <온드림스쿨> ‘손절이 두렵니?’를 시청한 후,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자.

유튜브 영상: KBS <온드림스쿨> ‘손절이 두렵니?’ <https://www.youtube.com/watch?v=2WzvjO4qJso>

- 1) “친구가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 2) 친했던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전혀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단짝이 되기도 한다. 우정이 변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이렇게 친구 관계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 아래의 글은 친구가 많은 학생(인싸)의 고민을 담은 글이다.

자신은 인싸 혹은 아싸,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자신이 인싸라서 혹은 아싸라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반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을 만큼 반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서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하... 그런데 요즘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찾다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 꿈이 요리사라서 집에서 요리를 공부하거나, 조용히 혼자 음악을 듣고 싶은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게 돼서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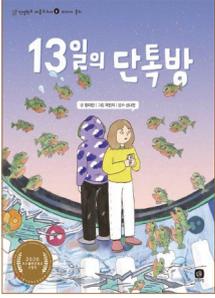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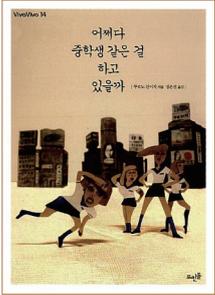
출처: KBS <온드림스쿨> ‘손절이 두렵니?’

9차시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함께 읽고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 다음은 『유리가면: 무서운 아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다. 이 책에서 꼽은 문장들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읽어본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볼 문제’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연계 독서 도서	책에서 꼽은 문장	생각해볼 문제
 <p>『13일의 단톡방』</p>	<p>먼저 말 걸어볼걸. 대꾸 안 하고 무시해도 신경 쓰지 말걸. 쿨하게 넘기고 기 안 죽고... 그냥 내 식대로 살걸.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그까짓 거 다 별 거 아닌데. 그때는 교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애들 말 한마디에 눈빛 한 번에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 나는 그렇게 작은 세상에 살았어.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170쪽).</p>	<p>주인공 민서는 교실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단짝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데 단짝 친구들끼리의 싸움이었을 뿐인데 관련이 없는 반 친구들 전체가 그 따돌림에 동참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사이버폭력에서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의 입장을 각각 생각해보고 비대면과 익명성이 앞세워지는 SNS의 사이버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p>
 <p>『어느 날 문득, 내가 달라졌다』</p>	<p>나 사실, 너 오기 전까지 왕따였어. 처음엔 아니었는데, 렌즈 잘못 껴다가. 서클렌즈. 지금은 못 끼는데, 그땐 매일 껴겨든. 그러다가 눈병이 심하게 나서 애들이 놀렸지. 짝거라고. 짝눈 거지. 양쪽 눈에 다른 색 렌즈를 껴겨든. 그러다가 눈병 나서 학교를 빠지는 바람에(92쪽).</p>	<p>이 책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외모 때문이다. 『유리가면』에서 왕따를 당한 이유와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유로 왕따나 괴롭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p>

연계 독서 도서	책에서 끄는 문장	생각해볼 문제
 <p>『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p>	<p>외갓집에서 체리새우를 처음 보았다. 수초 가득한 어항에서 나는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이 예뻐다. 맑은 물에서 사는 담수새우이고, 몸집이 자라면 주기적으로 탈피를 한다. 빈 껍질을 벗어 버리고 점프하는 모습이 무척 신비로웠다(172쪽).</p>	<p>주인공 다현이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씩 추스르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유리가면』의 유경이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왕따의 상황을 헤쳐나간다. 유경과 다현 모두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한 이 두 인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는 방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p>
 <p>『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p>	<p>문득 눈을 들어 보니 건너편 선반 앞에 아오이가 보였다. 아오이를 감싸듯이 카나에가 옆에 서 있었다. 아오이는 선반에 놓인 작은 파운데이션을 집어 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코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도둑질은 안 돼(152쪽)!</p>	<p>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나에게 이런 행동에 동참하라고 권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도둑질에 가담하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본격적으로 친구를 만들기 위해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해야 할까?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한다면 나도 똑같이 해야 할까? 사춘기 친구 관계에 담긴 무언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p>

내가 고른 책	
생각해볼 문제	

예시

요즘 친구 관계로 힘든 너에게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를 소개해보려 해.

주인공인 스미레는 중학교 2학년이 된 후로 제대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서 자신만 교실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어. 그러다가 인싸인 ‘아오이 네’의 무리에 끼기로 결심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라 하지. 스미레는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사실을 자랑스

럽게 여겼어.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술에 손을 대고 도둑질까지 하는데도 스미레는 거기

에 동참하지. 그러면서 갈등을 겪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결국 스미레는 옳지 않다

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의 도둑질을 저지하다가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돼. 너무 공감이 가

는 이야기들이라 읽으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사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소통하고 그룹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그래서 스미레처럼 무리에 끼기 위해 과도한 행

동을 하게 될 때도 있어. 이 책에서는 스미레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더

라.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의 친구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지. 이 책을 읽으며 나는 타인과의 관계

를 인생의 1순위로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면 스미레처

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

일수록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너도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마

음이 어두워진다면 이 책을 읽어봐. 조금 더 여유 있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을 거야. 또한 친구 관계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